

황금장갑도 무관? ... 호랑이 '남의賞' 쳐다보기



KBO리그의 포지션별 최고의 선수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2023 신한은행 SOL KBO 골든글러브 시상식이 11일 오후 5시 서울 삼성동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린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투수, 포수, 지명타자를 비롯해 1루수, 2루수, 3루수, 유격수 그리고 외야수(3명)까지 총 10개 부문 주인공이 단상에 오른다.

시즌이 끝난 뒤 이어졌던 시상식의 대미를 장식하는 골든글러브 시상식에서 KIA는 축하객으로 시상식을 지켜볼 전망이다.

포스트 시즌 탈락으로 '가을잔치'가 '남의 잔치'가 됐던 KIA, 각종 시상식에서도 주인공이 되지 못했다.

그나마 11월 27일 열린 KBO 시상식에서 박찬호가 새로 신설된 수비상 유격수 부문 공동 수상자로 LG 오지환과 나란히 단상에 오르며 KIA의 자존심을 지켰다.

'타이를 울더'도 배출하지 못한 KIA는 퓨처스리그에서 김석환이 남부리그 타격 2관왕(홈런·타점)

11일 KBO 골든글러브 시상식...7명 후보 올랐지만 수상 어려워 성적 부진 속 시상식에서도 아쉬움...LG, 몇명 수상할지에 관심

에 오르고, 김현수가 남부리그 다승 1위를 기록한 것으로 위안을 삼았다.

박찬호 외에 이번 겨울 시상식에서 박수를 받은 선수는 '만행' 최형우와 '막내' 윤영철이 있다.

최형우는 9월 24일 KT전에서 쇄골 골절 부상을 당하며 아쉽게 시즌을 마감했지만 올 시즌 121경기에 나와 타율 0.302, 17홈런 81타점을 기록했다. '불혹의 나이'에도 꾸준하면서도 강렬한 시즌을 보낸 최형우는 '2023 스포츠서울 올해의 상' 재기상 부문 수상자가 돼 당당히 시상대에 섰다.

프로 첫해 KIA의 선발로 8승을 수확한 '고졸 투수' 윤영철은 아시안게임에서 맹활약한 2년 차 한화 문동주에 밀려 각종 시상식의 신인왕 타이틀을 내줬다. 대신 윤영철은 조아제와 프로야구 대상 시상식에서 조아바이톤 에이상을 받으며 아쉬움을 달랬다.

이들을 끝으로 KIA의 2023시즌 트로피 수집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9일 일구상 시상식에 이어 11일 골든글러브를 끝으로 KBO의 시상식 일정이 끝난다. KIA에서는 투수 양현종·이이리, 2루수 김선빈, 유격수 박찬호, 외야수 이우성·스코라테스, 지명타자 최형우 등 7명이 골든글러브 후보에 이름을 올렸지만 수상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최형우는 경쟁력 있는 시즌을 보냈지만 타율·안타 1위에 빛나는 NC 손아섭이 지명타자 자리에 버티고 있다.

박찬호는 운이 없었다.

올 시즌 130경기에 나와 0.301의 타율과 30개의 도루를 기록하면서 타율 13위, 도루 3위에 이름을 올린 박찬호. KIA 공격에 불을 붙였던 박찬호는 유격수로 1042.2이닝을 소화하면서 KIA 내야도 지휘했지만 손가락 부상에 이어 손목 골절상을 당

하면서 막판 스피트를 하지 못했다.

여기에 시즌 종료 직후 이뤄지는 KBO MVP·신인상 투표와 달리 골든글러브는 포스트시즌 일정이 끝난 뒤 진행되면서 '팀 성적'이라는 변수도 있다.

올 시즌 KBO 리그를 담당할 취재기자들과 사진기자, 중계 담당 PD, 아나운서, 해설위원 등 미디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골든글러브 투표는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진행됐다.

골든글러브 유격수 부문 또 다른 후보 LG 오지환이 한국시리즈에서의 맹활약을 바탕으로 '포스트시즌 프리미엄'까지 받을 전망이다.

KIA는 팀 성적 부진 속 시상식에서도 아쉬운 2023시즌을 보내게 됐다.

한편 이번 골든글러브 시상식에서는 '우승팀' LG에 시선이 쏠린다. 29년 만에 한국시리즈를 패권을 차지한 LG는 10개 구단 중 가장 많은 12명의 후보를 배출했다. LG에서 몇 명의 수상자를 배출할지가 이번 골든글러브 시상식의 관전 포인트 중 하나다.

SSG 최정과 두산 양의지는 10회 수상에 빛나는 이승엽에 이어 '최다 수상 2위' 타이틀을 노린다.

3루수 최정은 2011시즌 첫 수상을 시작으로 8개의 '황금장갑'을 들어 올리면서, 역시 8차례 3루수 부문 수상자가 된 한대화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두산의 안방마님 양의지도 9번째 수상을 노린다. 포수로 7차례, 지명타자로 1차례 이름이 호명된 그는 포수 부문에서 김동수와 최다 수상 공동 1위다.

첫 수상을 기다리는 이도 있다. 홈런·타점 부문 1위이자 '국가대표 4번타자' 한화 노시환은 3루수 부문에서, 골든글러브와 인연이 없던 NC 박건우는 데뷔 후 15년 만에 외야수 부문에서 수상을 노린다.

최다 득표·득표율을 기록할 주인공에도 관심이 모인다.

지난해에는 정규시즌 MVP인 키움 이정후가 총 313표 중 304표를 찍어 이하면서 97.1% 득표율로 최다 득표와 최다 득표율의 주인공이 됐다. 역대 최다 득표는 2007시즌 두산 이종욱의 350표, 최다 득표율 기록은 2020시즌 NC 소속이었던 양의지가 기록한 99.4%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이소미가 7일 미국 앨라배마주 모빌의 매그놀리아 그로브 골프 코스에서 열린 Q 시리즈 최종 6라운드 일정을 공동 2위로 마무리한 뒤 2024 LPGA 투어 회원 카드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완도의 딸' 이소미, LPGA Q시리즈 2위 합격

내년 LPGA 투어 출전권 확보 호주 교포 로빈 최 수석 '영예' 성유진·임진희·장효준도 합격

2021년 안나린, 작년 유해란에 이어 3년 연속 한국 선수 Q 시리즈 수석 합격도 무산됐다.

그러나 이소미는 6라운드 108홀로 치러진 이번 Q 시리즈에서 선두권을 내내 지킨 끝에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해 내년 LPGA 투어에서도 우승 경쟁을 벌일 자질을 확인했다.

이소미는 "2주가량 미국에 머물면서 연습과 대회 출전으로 몸과 마음이 모두 몹시 지쳤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성적으로 마칠 수 있어서 감사하다"면서 "(수석 합격을 놓쳐) 아쉬움은 남지만 내년 LPGA 투어에서 좋은 모습으로 보답하겠다"고 다짐했다.

2019년 LPGA 투어에서 뛰었지만 이렇다 할 성적 없이 밀려났던 로빈 최는 이날 4언더파 68타를 때려 수석 합격의 영예를 안았다.

KLPGA 투어에서 올해 2승을 포함해 3승을 올린 성유진은 장효준과 함께 공동 7위(19언더파 411타)로 내년 LPGA 투어 출전권을 확보했다.

성유진과 장효준은 이날 나란히 2타씩을 줄였다.

올해 KLPGA 투어 다승왕(4승)이자 이번 Q 시리즈 출전 선수 가운데 가장 세계랭킹(40위)이 높은 임진희는 공동 17위(13언더파 417타)로 턱

걸이 합격증을 손에 쥐었다.

Q 시리즈 20위 이내에 들면 내년 LPGA 투어 대회에 대부분 출전할 수 있고, 21위부터 45위까지는 조건부 출전권과 2부투어인 엡손 투어 출전권만 준다.

36세 노장 이정은은 공동 23위(12언더파 418타)에 그쳐 조건부 출전권에 만족해야 했다. 흥정민도 공동 45위(8언더파 422타)로 밀려 조건부 출전권만 받았다.

일본여자프로골프투어의 강자 사이고 마오(일본)는 이소미와 함께 공동 2위에 올랐고 요시다 유리(일본)도 성유진과 같은 공동 7위로 합격해 내년 신인왕 경쟁에 나서게 됐다.

양희영이 캐디를 맡아 화제가 된 교포 제니퍼 송(미국)과 노예림(미국)도 임진희와 같은 공동 17위로 LPGA 투어에 복귀한다.

20위 이내에 중국 선수 4명이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지난해 US 여자 아마추어 챔피언십을 제패한 아마추어 세계랭킹 3위 바바 사키(일본)는 공동 62위에 그쳐 LPGA투어 진출은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연합뉴스

AI페퍼스, '천적' 정관장 상대 첫 승 도전

오늘 광주 페퍼스타디움

AI페퍼스가 홈구장에서 '천적' 정관장을 상대로 '첫승'에 도전한다.

광주 프로여자배구단 페퍼저축은행 AI페퍼스는 8일 오후 7시 페퍼스타디움에서 '14전 14패'를 기록하고 있는 정관장 레드스파크스와 만나 3라운드 두 번째 경기를 펼친다.

페퍼스는 지난달 28일 대전충무체육관에서 열린 정관장과의 경기에서 세트점수 1-3으로 지며 정관장전 14연패를 기록했다.

두 팀 모두 연패의 수렁에 빠져있는 상황에서 펼친 경기였다. 결국 탈출에 성공한 팀은 정관장이 됐다.

이번 경기를 앞둔 페퍼스와 정관장 모두 분위기가 좋지 않다.

페퍼스와는 지난 경기에서 5연패를 탈출했던 정관장은 지난 2일 IBK기업은행과의 경기에서 2-3으로 패하며 연승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페퍼스는 지난 5일 흥국생명전 완패로 6연패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다.

직전 경기에서 23개의 범실을 내며 기량을 펼치

지 못했던 페퍼스가 정관장을 상대로 안정적인 플레이를 하기 위해서는 범실관리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

높은 공으로 상대를 압박하는 것에 최적화된 정관장은 그동안 페퍼스를 상대로 강력한 오픈 공격을 보여줬다. 정관장의 오픈 공격 성공률은 시즌 평균 36.6%, 페퍼스 상대로는 46.8%다.

페퍼스를 상대로 공격성공률 각각 50.5%, 54.3%를 기록하고 있는 정관장의 '쌍포' 메가와 지아의 위력을 페퍼스가 감당해 낼 수 있을지도 관심이 쏠린다.

정관장은 현재 5승 8패 승점 17로 5위에 자리하고 있고, 페퍼스는 2승 11패 승점 6점으로 최하위다.

이번 경기에서 페퍼스가 승리할 경우 페퍼스는 정관장전 첫승을 기록하게 되지만, 정관장이 승리할 경우 페퍼스는 정관장 상대 '15전 15패'라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새로 쓰게 된다.

페퍼스가 창단 이래 유일하게 한번도 이겨본 적 없는 정관장을 상대로 첫 승을 거두며 연패 탈출에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AI페퍼스가 지난달 28일 정관장과의 경기에서 서로를 응원하고 있다. <한국배구연맹 제공>

타이거 우즈 필드 복귀에 TV 시청률 53% 급증

타이거 우즈(미국)가 7개월 만에 필드에 복귀한 무대 히어로 월드 챔피언십이 시청률이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스포츠비즈니스 저널은 지난 4일 끝난 히어로 월드 챔피언십 TV 중계 시청 가구는 나흘 평균 61만 7000가구에 이르렀다고 7일 전했다.

이는 우즈가 출전하지 않았던 작년보다 무려 53% 증가한 것이다.

시청 가구 수는 1라운드 때 49만7000가구가 작년보다 두배 이상 늘어 우즈의 복귀 첫날 모습에 대한 관심을 대변했다.

2라운드 때도 48만8000가구가 시청했는데 작년보다 99% 늘어났다. 3라운드 때는 103만 가구가 시청했다. 이는 작년보다 57% 늘어난 것이고 2019년 이후 최고 시청률이다. 최종 라운드 역시 88만4000가구가 채널을 고정해 작년보다 31% 늘었다.

우즈는 지난 4월 마스터스 대 중도 기권한 뒤 곧바로 발목 수술을 받았고 재활 끝에 히어로 월드 챔피언십에 출전했다. 그는 20명 가운데 18위에 그쳤지만 비교적 건강한 모습으로 72홀을 완주해 재기의 신호탄을 쏘았다. /연합뉴스